십자가로 그리는 사랑스케치

(고전13:4~7)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로 그리는 사랑스케치>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사랑을 스케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도 적용해서 사랑을 그려나갈 수 있다면,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은총과 축복,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가지고 사랑을 우리 자신에게 스케치해 나갈 수 있는 은사를 한 번 사모해 봅니다.
사랑은, 사도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스케치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된 이전까지는, 주로 이렇게 뭔가를 주는 것으로 그저 전형적인 사랑의 모습을 어렴풋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다, 또 실제로도 주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사랑인 것으로 표현되는 부분도 성경 속에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욱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 주시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날 때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 상대방을 상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최고의 은사이고,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만나는데 나를 통해서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기적이고 은사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려면 십자가로 내 마음에서 일정한 어떤 모양이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모습이, 마음가짐이, 마음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사람을 만날 때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모습으로 내 마음을 스케치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 마음의 모양을 그렇게 오늘 본문에 스케치 된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상대하시게 될 때에, 나와 그 사람과 하나님, 모두가 다 말할 수 없는 은총과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다 그러면,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한다고 해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결정적이고, 어떤 궁극적인,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궁극적인 지점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느냐? 그러면 돈을 줘도, 결국은 그 사람에게 궁극적인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물론 그 사람은 돈 몇 푼이 없어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배를 곯고 있는 사람에게 한 끼 밥을 먹여주는 것이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중요한 사랑의 행위이긴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차원으로 볼 때, 결정적인 차원으로 볼 때는 결국은 아무 도움도 못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내가 그에게 밥을 줄 수도 있고 구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구제와 정말 사랑 봉사와 희생의 행위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래서 그가 나의 봉사와 구제의 행동을 넘어서서, 그 봉사와 구제의 행동을 통해 혜택 받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그에게는 한 끼 밥 먹고 마는 것이지, 당장 그 자신이 느끼고 있던 목 졸림으로부터 숨을 쉴 수 있게 숨통이 트이는 것뿐이지 궁극적으로 아무 도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상대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내야 될 마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한 번 살펴봅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와요.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무언가 지속되고 있는 열정, 지속되고 있는 나에 대한 나쁜 감정, 지속되고 있는 나를 향한 좋지 못한 대우, 이런 것들을 견디어 낸다는 말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견디어 낸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내 속 마음으로, 저 놈은 나쁜 놈이다. 천하의 몹쓸 사람이다, 싹이 노랗다, 앞날이 뻔하다,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자다 등등…,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마지막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말썽을 부린다고 할 때, 정말 아무리 해봐도 안 되고, 아~무리 타이르고 아무리 야단을 치고 해도 아이가 고쳐지질 않는 겁니다.
이럴 때 오래 참는다는 것은, '아휴~ 저 놈의 자식은 그냥 저 생긴 대로 사는 것이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고 그냥 앞날이 뻔하고 걱정스럽다.'
이렇게 마지막 판단으로 매듭을 짓지 않는 게 오래 참는 겁니다.
그냥 열어둔 채로, 헤벌럭하게 열어둔 채로 나두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하여간 이유 없이 나에게 hard time을 줍니다. 이렇게 hard time을 줄 때, '정말 하루 이틀이지 못 견디겠어!' 그래서 '정말 천하에 저런 나쁜 사람이 없다'라는 마지막 판단으로 매듭을 짓지 않는 겁니다, 그냥 벌려두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판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쌈박하지 않지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뒤 담화를 할 때, 누군가 한 사람에 대해서 딱 정해버리면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고거? 아주 얌체 같은 사람이야.
그래놓고 얌체 같은 점에 대해서 집중포화를 가하면 아주 재미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을 맺지 않는 거, 이게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다는 얘기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상대방이 생긴 모습을 내 마음 안으로 조금도 변형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온유가 뭐에요?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겁니다.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것은, 내 마음에 사람을 만날 때에 딱딱하게 고정된 사람을 보는 틀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하는 행동거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먹었든지 간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이 부들부들합니다.
딱딱하게 고정된 틀에서 맞지 않으면 내 마음 안으로 못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든다 그러잖아요?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딱한 고정된 틀이 없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그려 나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나에게 hard time을 주는 부장님 앞에서, 도저히 이래 달래도 저래 달래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내 자식 앞에서, 정말 지독할 정도로 '돈, 돈!' 하면서 바가지를 긁는 아내 앞에서, 마지막 매듭을 짓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내 마음 안으로 그대로 수용하고 이 관계 자체를 그대~로 수용해 버리는 겁니다.
조금도 변형하거나 피하거나 바꾸려는 마음 없이.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 계시면서, 나에게 hard time을 주고 있는 그 부장님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넘겨버리는 겁니다, 관계의 바통을 넘기는 거예요.
우리 릴레이 할 때 바통을 넘기면, 바통을 받은 사람이 내가 뛰던 것을 이어서 대신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만남의 순간에, 내가 보듯이 저 사람을 보고 계시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hard time을 주거나, 아내가 바가지를 긁거나, 자식이 말썽을 피우는 모든 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오래 참는 게 되고 온유한 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냥 결론적으로 내린 거는, 참~ 제 자신은 사랑의 은사가 약하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아내 앞에서 자식 앞에서, 뉴스에 나오는 온갖 범죄자들 앞에서 이게 안 돼요.
오래 참는 거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판단의 매듭을 짓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판단이 유보된 채로 허벌럭하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내가 딱 매듭을 져버립니다.
딱 매듭을 짓는 그 습성이 작용을 하면, 사람을 딱 거부해 버리는 온유하지 못한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은, 내 속에서 상대방에게 일어나는 반응을 죽이는 것이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죽이는 것이고,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

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론 같은 맥락이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모두가 다, 상대방 앞에서의 나의 입장에 대한 애착, 내 입장에 대한 고려, 이것이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경쟁에서 뒤쳐져 있는 나의 입장을 못 견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경쟁적인 구도 안에서, 상대방을 앞에 두고 나의 우월함이나 훌륭함을 인정받고 확인받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의 훌륭함과 장점과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은, 역시 같은 맥락이라서 내 입장에 관한 애착에서 출발하는 건데, 다른 사람을 자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0점이라 그러면, 나는 그 0점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이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한다'는 이것은, 사람 관계에서 내 입장을 고려하거나 위하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십자가에서 내 입장에 대한 생각자체가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입장은 사람을 통해서 확인되고 확보되고 확고한 입지 위에 서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장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 입장을 세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시기심을 느낀다든지, 자랑하려고 한다든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든지 하게 될 경우는, 사랑을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나를 상대방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불신앙이 아니면 뭡니까?
이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돈이 너무너무 없어요.
동창생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명품 백을 들고 있어요.
말로만 듣던 그 명품 빽을 들고 있는데 나는, 백화점에서 떨이로 팔고 있는 몇 만 원짜리 백을 들고 있어요.

아! 부끄러워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됨은 지금 명품 백을 들고 있는 동창생 앞에서 못난 사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동창생과 만나고 있는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입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고, 아무리 명품 백 아니라 명품으로 칠갑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못났다고 하면 못난 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앞에서 시기심을 느낀다든지, 부끄러움을 느낀다든지, 이 시기심과 부끄러움은 손바닥의 안팎이죠, 그리고 자랑하려고 한다든지 교만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불신앙이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무례히 행하는 것도 교만히 행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례히 행한다는 것과 교만히 행하는 것은 똑같은 결과를 낳지만 뉘앙스, 강조점이 달라요.
교만은 내가 높아지는데 역점을 둔 마음가짐이라 그러면, 무례히 행하는 것은, 다른 상대방을 낮추는데 역점을 둔 마음가짐입니다.
결국 결과는 똑같지요?
내가 높아지고 상대방은 낮아지는 것인데, 교만은, 나를 높이는데 뉘앙스가 있고, 무례히 행함은, 다른 사람을 낮추는데 뉘앙스가 있는 마음가짐이지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한다.'
거의 다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지요.
내 유익을 상대방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만남은, 어떻게 만나고 있는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만나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보통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상식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에게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주시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움직임으로써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manipulation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도움을 주도록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엄청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서는 내 유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주권자이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미래를 결정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된 모든 것은 다 결정하시고 다 주십니다.
절대로 사람에게서 유익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만날 때, 하나님이 못 나타나십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낸다는 것도, 왜 성을 냅니까?
사람 만날 때 성내는 이유는 한 가지, 내가 상대방에게 관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에게 관철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이 안 받아들여지고, 내 바람이 안 받아들어지고, 내 소원이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자식 놈한테 화를 내는 게 왜 그래요? 도대체 내 말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철되지 않을 때 성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다 무례히 행하는 것도 그렇고, 다 지금 뭐에요? 내가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지요.
유익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불의가 뭡니까?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줍니다, 나를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옆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옆에, 내 앞에 살아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옆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불의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불의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한 최고의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동시에.
그러나 예수님 거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거예요.
지금 현재 살아 계신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칭찬과 나에 대한 인정과 이 모

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적일지라도, 나를 해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대적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고려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지금 살아 계신 하나님을 고려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고 있는 상태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게 진리에요.
그렇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이 세상 현실에 대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 할 수 있어요.
이 현실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총괄하고 있어요,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는다는 얘기는 이 참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판타스테게이'
이 '스테게'라고 하는 말이 지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붕으로 덮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본 '오래 참으며'라는 단어와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지붕으로 덮어서 가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사람을 만날 때 사랑이 나타나려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모든 촉각과 감각을 다 막아 버려서, 그 사람을 내 감각으로부터 가려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감각이 그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대하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 감각을 죽여 버리는 거예요.

지금 총괄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5절 6절에 걸쳐서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그리고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각으로 그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자식이 너무너무 말썽을 부리고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자식에 대한 나의 모든 감각을 다 가려버립니다.
지붕을 만들어서 안 보이게 만들어 버려요, 내 감감으로부터 자식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를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을 믿는다는 얘기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진노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진노도.
심판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각이 그를 대하고 있음으로써, 하나님 안에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람에,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는 감각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그 사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보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바램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내 감각의 지붕을 덮는 것이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감각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를 인정하는 것이 이게 믿는 것이고,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붙잡음을 통해서만, 그때까지 우리는 견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로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려진 사랑의 스케치.
이 스케치 모양대로 내 모습을 그려나갈 수 있을 때, 모~든 사람과의 만남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과의 만남조차도, 내게 은혜고 내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기꺼워하지 않으면서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워하면서 좋아하면서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만남이 축복의 만남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만남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감각에 지붕이 생겨 덮여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감각만이 그를 향해 살아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그를 향한 모든 뜻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에서, 십자가로 내 마음을 사랑의 스케치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